

KIA '안방마님', 흔들리는 불펜 잡아주오

'13점차 리드' 못 지키고, 역전 당하고... 또 다시 '사직 쇼크' 마무리 정해영 이탈 등 악재... 1위 수성 위해 자신감 회복을



'호랑이 군단'의 흔들리는 불펜, 안방의 힘이 중요하다.

1위 KIA 타이거즈에 '사직'은 악몽의 장소가 됐다. KIA는 지난 5월 사직구장에서 진행된 롯데 자이언츠

와의 시즌 첫 원정 시리즈에서 스윙패를 당했다. 시즌 첫 3연패였다.

KIA를 만나기 전 순위 가장 아래에 있던 롯데는 1위를 상대로 3승을 챙기면서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5월 21일 제임스 네일이 선발로 나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지만 장현식·곽도규·최지민이 출격할 7회 4실점을 하면서 1-6 역전패를 당했다.

5월 22일에는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선보인 롯데 선발 박세웅에 막혀 고전했다. 이날 9회 1사 만루의 기회가 있었지만 대주자 박정우의 주루사와 함께 경기는 2-4패로 끝났다.

5월 23일에도 패배는 계속됐다.

1회초 KIA가 롯데 윌커슨을 상대로 2점을 만들었지만 선발 김사운이 1회 3실점을 하면서 이내 역전을 허용했다. 그리고 불펜진은 이학주에게 멀티포를 허용하는 등 4개의 홈런을 얻어맞고, 6-10패가 기록됐다.

한 달 만에 재개된 리턴매치에서도 악몽의 경기는 이어졌다.

KIA는 지난 25일 14-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충격의 15-15 무승부를 기록했다.

믿었던 네일이 5이닝 11피안타 3사사구 4탈삼진 9실점(4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흐름을 내줬다. 내야에서 아쉬운 실책이 나왔다고 해도 아쉬운 결과, 이어 나온 김대유-김도현-곽도규도 모두 실점을 하면서 KIA는 5시간 20분의 연장 혈투 끝에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다.

26일에도 사직 쇼크는 계속됐다.

캠 알드레드가 6이닝 2실점을 한 뒤 4-2에서 마운드로 불려났지만 역시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불펜이 가동된 7회 김승현과 곽도규에 이어 김건국까지 3명의 투수가 투입됐지만 동점에 이어 역전까지 허용했다.

KIA의 불펜이 가동되면 경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마무리 정해영까지 어깨 염증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강점으로 꼽혔던 KIA 불펜은 약점이 되고 말았다.

안 좋은 결과가 이어지면서 불펜진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당장 불펜을 강화할 수 있는 전력도 마땅치 않다.

효율적인 마운드 운영과 자신감 회복이 불펜 위기 탈출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포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KIA는 젊은 마운드를 보유하고 있다. 힘과 패기는 뛰어나지만 위기에 취약하다. 포수들이 자신감 있게 경기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



마무리 정해영 이탈 속 불펜 난조가 겹치면서 위기의 마운드를 이길 KIA 포수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사진은 베테랑 포수 김태군(왼쪽)과 정해영이 경기 끝난 뒤 악수를 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아구는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하는 베테랑 포수 김태군은 "뭣해도 상관없다. 못 던져도 상관없다. 중간 과정이 조금 안 좋을 뿐이지 21-22세 어린 선수들인데 결과가 안 좋아도 된다. 성장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다"며 젊은 불펜진의 자신감을 강조했다. 또 "투수는 말 그대로 공을 던지는 사람이다. 생각을 많이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공을 던질 수 없다. 게임을 운영하려고 하면 잘 안된다. 생각 없이 주무기를 던지면 된다"며 배터리의 호흡을 이야기했다.

공을 던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포수의 노련한 리드와 철벽 수비가 필요하다. 포수는 체력적으로 가장 부담이 많은 포지션이기도 한 만큼 KIA는 더위가 찾아온 여름 1위 수성 여부를 '배터리'에 맡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제주 잡고 홈 연패 탈출한다

30일 K리그1 20라운드

위기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광주FC가 홈에서 연패 탈출에 나선다.

광주는 30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연승 뒤 연패에 빠진 광주다.

광주는 지난 15일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두 번째 '클린시트'를 장식했다. 여세를 몰아 부천FC와의 코리아컵 16강전에서는 3-2로 이기며 3경기 연속 승리의 세리머니를 했다.

기본 좋은 연승으로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원정 2연패'다.

광주는 지난 22일 대전 원정길에서 전반 5분 만에 나온 베키의 골을 지키지 못하고 1-2 역전패를 당했고, 25일 수원FC와의 방문 경기에서는 골 침묵 속에 0-1패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7승 1무 11패(승점 22)가

되면서 6위에서 8위로 내려앉았다. 9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10위 대구FC가 승점 2점 차로 광주를 추격하고 있다. 11위 대전과는 승점 4점 차, 최하위 전북현대와는 승점 6점 차다.

광주는 제주전을 터닝포인트로 삼겠다는 각오다.

지난 5월 광주는 베팅 끝에서 제주 원정길에 나섰다. 당시 6연패에 늪에 빠져있었던 광주는 엄지성과 이희군의 골을 묶어 3-1 승리를 거두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된 제주, 두 팀의 통산 전적은 7승 6무 7패다. 최근 흐름은 광주가 좋다. 광주는 지난해 7월 이후 2승 1무를 기록, 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다.

'캡틴' 안영규와 '터줏대감' 두현석이 부상에 돌아와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점은 반갑다. 빠듯한 일정에서도 혼신의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는 정호연도 든든하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광주의 숙제다.

광주는 올 시즌 경기를 주도하고도 후반 중반 이후 실점을 하면서 승리를 날리고 있다.

대전 원정에서는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송창석의 극장골을 지켜보아야 했고, 앞선 수원 원정에서도 후반 30분 실점을 하면서 승리를 내줬다.

집중력과 절실함으로 상대를 이겨내야 한다.

부상으로 빠졌던 '악바리' 이희군의 복귀가 임박했고, 앞선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브루노가 K리그 데뷔전을 치르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장맛비가 예정된 만큼 수문장 김경민이 수중전을 잘 지휘해야 한다.

허울에도 시선이 쏠린다. 센터백으로 변신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허울은 이번 제주전에 나서면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우게 된다. 100번째 경기에서 허울이 승리의 주역까지 되는 게 광주의 최고 시나리오다.

광주가 경계해야 할 상대는 헤이스다. 2021-2022년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던 만큼 누구보다 까다로운 적이다. 또 헤이스는 앞선 인천전에서 결승골을 장식하는 등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광주가 '간절함'으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vs 중동·중동·중동·중동·중동

월드컵 3차 예선 상대 모두 중동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중동 팀들과만 한 조에 묶였다.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진행된 대회 3차 예선 조 추첨 결과 한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로 묶였다.

한국을 제외한 5개 팀 모두 중동에 있어 험난한 원정 경기가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포함된 A조, 강호 호주와 한국을

잘 아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속한 C조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무난한 조편성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18개국이 3개 조로 나뉘어 치르는 3차 예선은 본선행 티켓 8.5장 중 6장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사실상의 최종예선이다.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홈 앤드 어웨이로 10경기씩을 치러 각 조 1-2위가 북중미로 가는 직행 티켓을 거머쥔다.

5-6위는 곧바로 탈락하고, 3-4위 6개 나라는 2장의 티켓을 놓고 싸우는 4차 예선을 치른다.

/연합뉴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 편성



- 개최국: 캐나다·멕시코·미국
- 월드컵 기간: 2026년 6월11일~7월19일(결승전)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2024년 9월5일~2025년 6월10일: 18개국은 3개 조로 나뉘어 각 조 상위 2개국씩 월드컵 본선 직행(총 6개국)

2025년 10~11월: 3-4위 6개국은 2개 조로 나뉘어 다시 경쟁 후 각 조 1위 국가 본선행(총 2개국)

2위 국가들은 서로 맞붙어 대륙 간 플레이오프 진출팀 결정

(): 6월 20일 기준 피파랭킹

A조	B조	C조
이란 (20)	한국 (22)	일본 (17)
카타르 (35)	이라크 (55)	호주 (23)
우즈베키스탄 (62)	요르단 (68)	사우디아라비아 (56)
아랍에미리트 (69)	오만 (76)	바레인 (81)
키르기스스탄 (101)	팔레스타인 (95)	중국 (88)
북한 (110)	쿠웨이트 (137)	인도네시아 (134)

한국 3차 예선 경기 일정

2024년 9월 5일 (홈) VS 팔레스타인	2025년 3월 20일 (홈) VS 오만
9월 10일 (원정) VS 오만	3월 25일 (홈) VS 요르단
10월 10일 (원정) VS 요르단	6월 5일 (원정) VS 이라크
10월 15일 (홈) VS 이라크	6월 10일 (홈) VS 쿠웨이트
11월 14일 (원정) VS 쿠웨이트	
11월 19일 (원정) VS 팔레스타인	

자료: 아시아축구연맹(AFC)



이종범 던지고 이정후 받고

SF '코리아안 데이'서 시구·시포... "어깨 수술 회복 중... 내년 복귀 최선"



이정후(오른쪽)가 아버지 이종범 전 LG 코치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 어깨 수술로 빅리그 첫 시즌을 조기 마감한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오랜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4 MLB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서 시포를 했다.

"한국 문화유산의 밤"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시구는 이정후의 아버지인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가 맡았다.

이정후는 이날 수술 여파로 왼손에 글러브를 착용하진 못했지만, 시포할 때 왼팔을 무릎에 올려놓거나 기념사진을 찍을 때 왼손을 올려 얹어주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유일의 한국인 선수인데 이날 경기에 뛰지 못한다는 점은 짙은 아쉬움을 남기는 듯했다.

이정후는 "한국 문화유산의 밤인데 부상 중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정후가 뛰고 싶은 경기를 먼발치서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정후는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서 뛰던 2018시즌에도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다. 당시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2차전 9회말 수

비에서 어깨를 다친 이정후는 그대로 가을 무대에 서 퇴장했다.

결국 팀이 준플레이오프를 뚫고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와 플레이오프에서 연출한 명승부에 함께하지 못했다.

넥센은 1, 2차전을 내주고 3, 4차전을 이기는 끈기를 보여줬으나 5차전에서 연장 10회말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이정후에게 약이 된 듯했다.

이정후는 당시 6개월로 예상된 재활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그다음 해 2019시즌 정규시즌 개막전을 정상적으로 치렀다.

이후 2023년까지 5시즌 동안 수술 후유증 한번 없이 KBO리그 최고 타자로 군림한 끝에 올해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다.

'빅리거' 이정후에게도 비슷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다.

이정후가 현재 6개월로 예정된 재활 기간을 단축해 겨울 오프시즌 동안 충분히 몸 상태를 끌어올린 뒤 스프링캠프, 시범경기, 개막 엔트리에 순조롭게 진입하는 구상이다.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달러에 계약한 이정후에게 남아있는 시즌도 딱 5시즌이다.

지난달 이정후는 "2018년에도 같은 수술을 받았고 이후 KBO리그에서 건강하게 뛰었다"며 "MLB에서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열심히 재활해 다시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연합뉴스